

웃둥 보살 빛둥 거사 <42>

구성 : 김흥민



외아들을 죽인 여자

<백유경(百喻經)>



옛날 어떤 부인이 처음으로 아들을 낳고 다시 아들을 낳고자 다른 부인에게 물었다. “누가 나로 하여금 다시 아들을 두게 하겠는가.” 어떤 노파가 말했다. “내가 능히 아들을 얻게 해 줄 터이니 하늘에 제사하라.” 부인은 물었다. “그 제사에는 어떤 물건을 써야 하나.” 노파는 말했다. “너의 아들을 죽여 그 피로 하늘에 제사하면 반드시 많은 아들을 얻을 것이다.” 부인은 그 노파의 말에 따라 아들을 죽이려 했다. 옆에 있던 지혜로운 사람이 그것을 보고 꾸짖었다. “아직 낳지 않은 아이니 얻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를 위해 현재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구나.” 어리석은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아직 나지 않은 즐거움을 위해 스스로 불구덩이에 몸을 던지고 갖가지로 몸을 해치면서 천상에 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옛 판화의 세계

단을 세워 기우제를 지내다 입단기우(立壇祈雨)



고려 판화박물관 소장 <신라 판화(新羅 判畫)> 중 입단기우(立壇祈雨) 판. 불림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cm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중국 밀교의 개조인 금강지 선사가 기우제를 지내는 장면으로 철구 지보살상을 개안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판각한 작품이다. 금강지(金剛智 671~741)는 인도 출신으로, 10세 때 나란타사의 적정지(寂靜智)를 따라 출가해, 성명론(聲明論) 법칭론(法稱論)을 배운 후 20세에 비구계를 받았다. 6년 동안 다시 대승률(大乘律)과 소승률, 공종(空宗)의 <반야등론(般若燈論)> <백론(百論)> <십이문론(十二門論)>을 공부하고, 가비라성(迦毘羅城) 승현(勝賢)에게서 유식학(唯識學)을 공부했다. 그 뒤 남인도의 용지(龍智)에게 가서 7년 동안 밀교(密敎)의 깊은 이치를 공부했으며, 마외야국 보타락가산에 올라 관음의 신령스러운 말씀을 받아 중국에서 가르침을 펼 것을 결심했다. 개원 8년(720)에 당나라 낙양에 들어가 대자은사(大慈恩寺)에서 밀교를 크게 펼쳤다. 제자인 불공(不空), 일행(一行)과 함께 개원 11년부터 <금강정유가중략출입송경> <금강봉무각일체유가유기경> 등을 번역하고, 다시 황제의 칙명에 의해 기우(祈雨)를 행하고 공주의 병을 낫게 했다. 낙양의 광복사(廣福寺)에서 71세를 일기로 열반에 들었다. 본문을 살펴보면 “황제는 금강지에게 조서를 내려 단을 결성하여 비가 내리기를 빌도록 요청했다. 불공과 보살법에 의거해 그가 주석한 곳에 단을 세웠으며, 몸소 철구지보살의 상을 세워 기일을 건립해 광명을 열게 하고 날을 정해서 비가 오게 기원했다. 황제는 일행선사를 시켜 살펴보게 했는데 7일이 되자 불꽃같은 기운이 충창하고 하늘에는

흰구름이 없었다. 오후가 되어 보살상의 눈썹과 눈을 열게 하니 그 즉시 서북풍이 일어나 기우장이 날아가고 나무뿌리가 뿔뿔히 부서지는 구름에서 비가 쏟아져 내렸다. 이에 밀교 가까운 곳에서 모두 놀라고 이상하게 여겼는데 단을 결성했던 땅에는 구멍이 뚫어지고 홍수가 도랑에 쏟아져 들어왔다. 경성의 선비 선인들이 모두 금강지가 한 마리의 용을 잡아 집을 뚫고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곳을 구경하는 사람이 하루에도 천만 명에 달했다. 이때부터 그는 널리 밀장을 부양해 만다라를 건립했는데 밥에 근거해 지어 이루어 모두 신령한 서상이 감응했다.” 금강지의 밀장이 일행과 불공, 혜초에게 전수됐으며, 신라에도 전해져 한국 밀교의 기틀이 됐다. 선학 스님(명주사 교관화백물관장)



詩가 있는 도량

안국사에서 뽕차를 먹다

비 오고 는 오고 안개 낀 지리산 백무등 계곡에 사는 신선들은 외입 가고 없었다. 동안계에서 풀려난 고답사 주인은 함양 가지고 당신 없이 오는 손님 다 뜻차시키고 차방 아랫목에 불 지펴둔 안국사 주인은 부산 가지고 눈 쌓여 아 이들 슬러시같이 녹은 대웅전 마당 아

래 차를 세우고 차방에 들어 뽕차를 먹었다. 차 맛이 안개 맛이다 차방의 찻상을 마주하고 우리는 무릎 겹겹으로 찻상머리 비집고 앉은 지리산을 보았다 안개가 지리산을 낳고 있었다. 나는 거기서 그만 죽고 싶었다
-석여공/〈잘 되었다〉에서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섬수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육비)로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교식 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재, 백일재 기도, 영가 천도재, 기제사 외
- 수능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 접수 봉행 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 금. 토 오전 10시~3시까지)
- 4월 방생 안내 (간월암) 4월 25일 토요일 오전 8시 출발 많은 동참 바랍니다.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 (031)836-0477 / 010-4111-7523

사찰 종합 보험 전문

사찰내외의 다양한 위험(화재 풍수해 도난 등)에 대한 대비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 상해 질병의료비 보험 상담
-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상담
- 은퇴 후 노후 설계 상담



종합자산관리사 (IFP) 이진우 합장 011-766-1001